부산 불자 1000여 명 수계…“청정한 삶 발심”

조계종부산연,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불갑사 관정수로 초심 되새겨
군장병 90여 명 동참해 ‘눈길’
지현 스님 “계율, 고통 멈출 지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7월 15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소속 9개 사찰과 지역 신행단체,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했다.

수계법회는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이자 관음사 회주인 지현 대종사가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갈마아사리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교수아사리는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이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목종·도일·하림·지일·정관·인호·지산 스님이 맡아 계단을 증명했다.

법회는 태공 스님의 인례 아래 대종오타, 삼보예경, 청사 및 개도, 참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정의식에 사용된 관정수는 백제 불교 전래의 시원지인 영광 불갑사에서 직접 채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법석에는 대광명사, 홍법사, 혜원정사, 관음사, 미타선원, 해광사, 내원정사, 원오사, 불암사 등 연합회 소속 사찰을 비롯해 부산여성불자회,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BBS법소리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제53보병사단 장병 90여 명도 수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계법회는 8회를 맞아 참석자의 구성과 의미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줬다. 특히 군장병의 참여는 수계 의식의 외연을 확장한 사례로, 청년 세대가 계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행의 가치를 체득하는 발심의 자리로 기능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고 공동체적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발전적 모습으로 평가된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은 설법을 통해 “계를 받는 순간 불가사의한 공덕이 시작되고, 그 공덕은 여러분의 불가사의한 신심과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칠불통계는 모든 고통을 멈추는 지혜이다. 악행을 멈추고 선을 실천하는 바로 그 길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듯, 청정한 계율을 실천하는 삶은 이 오탁악세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빛을 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씨앗을 정성껏 키워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7월 15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군장병에게 관정의식을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

갈마아사리 심산 스님은 “오늘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제53사단 장병들과 같은 청년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매우 뜻깊다.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일”이라며 “수계를 통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교수아사리 원허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다짐이자 결단”이라며 “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일깨워주는 나침반이다.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 속에 계율이 스며들어야 하며, 작고 사소한 실천이 쌓일 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무명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수계는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언행과 마음을 돌아보고, 불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상을향기롭게, 미얀마 현장 답사·기부

양곤 · 바고 보육원 등 방문…3000달러 후원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가 7월 4~8일 미얀마 양곤과 바고 지역을 방문해 복지사업 준비를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지역 복지시설에 총 3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미얀마 지역 내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복지·교육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향기롭게는 현지 기관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양곤의 야쨔쪼 보육원, 양곤불교대학교, 바고의 사마네쪄 수도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정여 스님은 “이번 미얀마 방문은 단순한 시혜적 구호사업이 아니라 같은 불교국가로서의 유대와 공감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세상을 더욱 향기롭게 만드는 복지와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 잇는 자비 실천, 함께해요”

생명나눔부산, 장기기증 인식 전환 강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7월 1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를 열고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1부 강의는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 영남지부장이 맡아 ‘장기 및 조직기증, 뇌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장기기증의 개념과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넓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심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 여러분에게 생명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해난구조대 힐링 템플스테이 개최

7월 15일~16일, 20여 명 동참
심산 스님 “프로그램 전액 지원”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해군 장병들에게 정서적 회복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첫 템플스테이는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구조작전대대 소속 심해잠수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SSU는 해상 인명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돼 생존자 구조와 희생자 수습을 맡는 부대로, 극한 환경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을 요구받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이들에게 ‘쉼’과 ‘내면 회복’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홍법사 공익형 템플스테이에는 SSU 구조작전대대 소속 심해잠수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싱잉볼 이완 명상 △호흡 및 걷기 명상 △108배 수행 △사찰음식 만들기 △주지스님과의 차담 △소감문 나눔 등으로 구성됐다.

심산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사회를 지탱하는 이들을 위한 공익적 수행이어야 한다”며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전액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박영남 중령은 “극한의 임무에 투입되는 대원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이진규 하사는 “잡념 없이 편히 쉬면서 그동안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SSU 템플스테이는 1차를 시작으로 총 5차례까지 계획됐다. 이어지는 회차에는 SSU 다른 중대와 진해 지역의 해군 부대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초에는 해군사관학교 생도 20여 명이 참가하는 별도 템플스테이도 예정돼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부산정각원, 어르신 초청 영양식 공양

7월 16일, 1000인분 마련…“정성으로 마련”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공양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부산정각원은 7월 16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식 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공양은 견강암 신도들과 부산정각원 회원들이 며칠 전부터 직접 재료 손질과 조리에 동참해 마련했다. 우정축산이 재료를 보시하고 ‘행복소리’가 음향 장비를 지원해 정성을 더했다.

향공 스님은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4대 회장 도심 스님 취임

축



상임수석부회장 최병환 등
‘4대 집행부’ 위촉식 성료

취임 및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